

# 신학기 맞은 대학가 눈길 끄는 이색 입학생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지난 2일 일제히 입학식을 갖고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이색 입학생들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호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는 다른 신입생들보다 3년, 1년 빨리 입학한 형제가 있어 화제다.

초·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15살의 민수기군은 형 민호(18)군과 함께 나란히 입학했다. 최연소로 입학한 민수기군 형제는 영어 공부를 위해 외국으로 여학연수를 다니다가 정규 학교과정 이수에 예의를 겪자, 과감히 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택했다.

동생 수기 군은 전 과정을 검정고시로, 형 민호군은 중·고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수기 군의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호기 군의 친구들은 고교 2학년이다. 두 형제의 꿈은 영어교사다.

조선대 러시아어과에는 12살 때인

## 호남대 영문학과 최연소 형제 동신대 안경과는父子 나란히

### 12살때 한국 입양 나스타양, 조선대 러시아어과 광주일보 마라톤 톨 한성주군, 조선대 체육학과

2001년 러시아에서 입양 온 갈색 눈에 금발의 장수인(여·19·러시아 이름, 나스타 바스카예브)학생이 입학했다.

우산증을 거쳐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조선대를 입학한 그의 장래 희망은 동시 통역사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은 저를 무척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저

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 주시는 것에 감사해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통역사가 돼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게요" 라고 말했다.

조선대 체육학부에는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방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갖춘 한성주(18)군이 새내기로 들어왔다.

그는 지적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자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학생부 쇼트트랙에서 2년 연속 2관왕을 차지한 전국 최고의 빙상선수이다. 특히 광주일보 주최 3·1절 마라톤대회에서 하프 코스 4년 연속 완주기록을 세웠고 합기도와 태권도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다.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입학했다.

목포 하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남국현(50)씨는 '공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만에 늦깎이 대학생이 됐고, 아들 진성군은 올해 목포 흥일고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동기동창이 됐다.

이와 함께 순천대학교에는 만 14세(1994년생)의 박지원양이 생명산업과학대학 원예식물의학부에 최연소 입학했으며, 세상동일 문한국(19·물류학과), 문민국(19·물류학과), 문대현(19·사회교육학과)군도 나란히 입학식에 참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대학 잘 적응하세요” 5일 오전 조선대 서석홀 5층 대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9학년도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수완지구 신설학교 학생 모집 기대 이상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신설 학교 학생 모집이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일 문을 연 고실, 장덕, 큰별 등 3개 초등학교 입학생이 250명 안팎으로 7~12개 학급을 배정했다.

고실초교는 전 학년 229명에 신입생은 47명으로 7학급을 배정했으며, 1학년은 2학급이 배정됐다. 장덕초교는 270명에 9학급, 큰별초교는 235명에 12학급이 배정돼 공부를 시작했다.

시 교육청은 보통 택지개발지구 신설 학교가 2~3년만에 정원을 채우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많은 수의 학생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광주여대, 베트남 흥방·락홍대와 교류협정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의 2개 대학교를 방문,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등에 합의했다. 광주여대의 오장원 총장과 기획홍보처장 등 대외협력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은 베트남 호치민 '흥방대학교'와 '락홍대학교'를

방문해 공식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이들 대학교는 교환 교수 및 학생 파견, 학술 연구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학술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전남대 정환용교수 '계획이론' 책 펴내

전남대학교 정환용 교수(경영대학 경제학부)가 '계획이론'(개정판, 박영사)을 펴냈다. 2001년 초판을 발행한 정교수는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계획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초판 발간 이후 국내외의 연구논문과 관련 서적들의 새로운 내용들을 보완해 저서의 내실화를 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계획이론이 단순한 재주나 기술 수준에

서 과학으로 자리잡는데 중점을 뒀다. 이 책은 대학에서 계획이론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물론, 계획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순천대, 청년여성 취업지원 사업 대학

순천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신은주)가 '2009년도 지역사회 맞춤형 청년여성 취업지원사업'대학으로 선정됐다. 여성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지역 특화직종 발굴 취업교육, 고학력 여성에 적합한 유망 직종을 발굴하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순천대는 이번 사업에서 대학 특화과정 61개 과정 중 물리학과 연계사업(해운항만 물류비즈니스 인력 양성과정)과 회계학과 연계사업(외국계 기업 전산사무 여성인력 양성과정)이 선정되면서 전라권 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취업 지원 사업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호남대 김진욱·김병용군 전국 PR공모전 대상

호남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진욱(09년 졸업, 사진 왼쪽), 김병용(3년) 학생이 화순군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 LOVE 화순 전국 대학생 PR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들 학생들은 45개 대학 75개팀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서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 화순 테라피타운'(지도고수 이원형·박성호)을 출품해 대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대상 작품은 화순군 백아산 휴양림

중심의 '스킨 테라피', 모후산 숲을 활용한 '요가 명상 테라피', 한약재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한방 테라피' 등 4개 권역으로 분류,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극찬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동 10-1 (062) 227-9940  
총창점: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동 10-1 (062) 227-9970

방수  
IPALO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www.kangnam.com

OPEN 축하 행진/환/매!  
www.kangnam.com